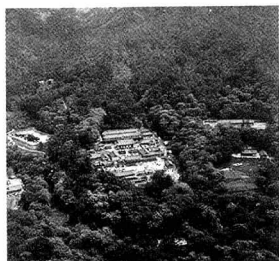


## 승보사찰 송 광 사



정 재 훈

〈 문화재발굴조사사업단장 · 전 문화재관리국장 〉

**송** 광사(松廣寺)는 호남의 명산인 순천 조계산(曹溪山 : 887m) 깊은 계곡 맑은 계류가에 터잡고 있다. 송광사는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선풍(禪風)의 본산인 수선(修禪)의 총림이며, 문화유산의 정수들이 가득히 간직된 보고이기도 하다.

송광사에 관한 기록은 「송광사사적비(松廣寺事蹟碑)」, 「보조국사비명(普照國師碑銘)」, 『승평속지(昇平續誌)』 등에 전한다. 송광사의 창건은 신라말 혜린선사에 의해 길상사(吉祥寺)라는 작은 절이 이룩되고 1,200년 경 보조국사에 의해 정혜사(定慧寺)로 크게

- ① 송광사 전경
- ② 송광사 앞 계단과 무지개다리
- ③ 종각

중창된 후 1204년 고려 희종(熙宗)이 글을 내려 수선사(修禪社)로 이름을 바꾸게 하였다. 고려 때는 절을 사(社)라 하기도 하였다.

수선사 시대는 조선초기까지 계속되었다. 송광사는 임진왜란 때 피해를 입어 폐사가 되다시피 했고, 그 후 다시 중창되었다가 1842년 큰 화재로 1252칸의 건물이 불타고 그 후 복구되었으나 1951년 5월, 6·25전쟁시 공비의 방화로 절 중심 건물이 모두 불탔다.

1955년부터 일부 건물이 재건되었으며 1983년부터 대웅전, 지장전, 박물관 등이 모두 중창되었다. 중창된 대웅전은 개성 만월대의 궁전 건물처럼 익사가 양쪽에 달린 장중한 건물이며 불상 또한 웅위하고 자비로운 상으로 조성되었다. 대웅전 후면의 축단과 사찰의 담장 등은 전문가의 지도하에 옛조화를 살려서 송광사의 면모를 새롭게 했다.

우리는 송광사에서 한국 문화사의 몇 가지 귀중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계류를 이용한 사원(寺苑)의 기발한 조영성이다. 절 앞을 휘

감아 흐르는 계류 위에 무지개다리(虹橋)를 설치하여 선계(禪界)와 속세를 구분하는 기능을 상징화하였다. 계류가 굽이치는 동구에 무지개다리를 쌓고 그 위에 청량각(淸涼閣)을 세웠으며 이를 지나 들어가면 일주문 뒤에 사방 1칸씩의 작은 건물 두 채를 짓고 척주각(滌珠閣)과 세월각(洗月閣)의 현판이 걸려 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재(齋)를 올릴 때 신위를 정하게 목욕하는 곳으로 척주각은 남자의 영가를, 세월각은 여자의 영가를 목욕하는 곳이다.

이 관욕처(灌浴處) 왼쪽에 보조국사가 심었다는 높이 15m나 되는 고향수(枯香樹)의 늙은 나무가 서 있다. 이를 지나 절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류에 단을 쌓아 연못처럼 물을 담고 그 계담(溪潭) 위에 능허교(凌虛橋)의 무지개다리를 놓고 다리 위에 4칸짜리 우화각(羽化閣)의 문루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다리는 홍예루교(虹預樓橋)의 형식으로 세워져 있는데, 1700~1711년에 건립되었다. 참으

로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이를 지나 천왕문을 들어서면 종각과 박물관이 있고, 이를 지나면 보물 제302호로 지정된 약사전(藥師殿) 건물이 있다. 1칸짜리 정방형 법당인데 대들보가 없고, 공포와 도리리만 짜올린 우리 나라 법당 중 제일 작은 조선중기 건물이다. 약사전 옆에 영산전(보물 제303호)이



▶ 大德高僧 사리탑

있다. 이것은 1639년에 건립되었는데, 주칸 사이가 아주 짧으며 장중하게 보이도록 과중한 3출목의 공포가 특이하다. 새로 지은 웅장한 십자형 대웅전을 지나면 후면 단위 오른쪽에 국보 제56호로 지정된 국사전(國師殿)이 있다. 정면 4칸, 측면 3칸의 단일통칸 5량집으로, 맞

배지붕을 하고 있다. 조선초기의 아름다운 건물이며, 천장의 연화문 단청과 대들보의 용문(龍文) 단청은 희귀한 것이다.

이 조사당 내에는 보조(普照), 진각(眞覺), 청진(淸眞), 진명(眞明), 원오(圓悟), 원감(圓鑑), 자정(慈靜), 자각(慈覺), 감당(湛堂), 혜감(慧鑑), 자원(慈圓), 혜각(慧覺), 각진(覺眞), 정혜(淨慧), 홍진(弘眞) 등 15명의 국사와 조선시대의 고봉(高峯) 화상의 영정이 있다. 그 옆 하사당(下舍堂)은 보물 제263호로 원래 선실(禪室)이었다. 1칸은 부엌, 2칸은 온돌방인데 부엌 위에 연기를 뽑아내는 환기공이 있어 지붕 위에 또 하나의 새끼지붕이 솟아 있다. 조선초기의 특이한 선방집이다. 이 외에 일주문, 십자각, 우화각 등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오래된 집들이다.

## 고려시대 경제·사회상을 알게 하는 문서들

송광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번째 귀중한 특성은 성보각(박물관)

에 고려시대 경제와 사회를 알 수 있는 특이한 문서들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보 제43호인 고려고종제서(高麗高宗制書)는 당시 명필인 탄연풍(坦然風)의 글씨이다. 이것은 1215년 고려 고종이 혜심에게 대선사(大禪師)를 제가한 문서로 관직, 성명, 수결(手決) 등 고려시대 문서의 원형을 볼 수 있다.

보물 제572호인 노비첩(奴婢帖)과 수선사형지기(修禪社形止記)는 당시 경제와 사회상을 알게 한다. 노비첩은 1281년 작성된 것인데 우리나라 노비문서 중 가장 오래된



▶ 高麗高宗制書

것이다. 내용은 출가한 원오국사(圓悟國師)가 속가(俗家)의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부모로부터 받은 노비를 사찰에서 일하게 한 것이다. 수선사형지기는 당시 수선사(지금의 송광사)의 실태를 국가관리자가 조사하여 보고한 문서이

다. 형지기(形止記)란 현황 보고서라는 뜻이며, 당시의 가람배치, 보조국사의 비문, 수선사 중창기, 절의 논밭수량, 승려수, 재산목록이 적혀 있고 관직, 성명, 수결이 있다.

보물 제134호 경질(經帙)은 마포 같은 천을 붙이고 그 위에 닥지를 깔 다음 그 위에 대나무 발을 접착시킨 것으로, 내부에 꽃무늬를 그렸다. 이것은 불경을 읽을 때 받치는 받침이다.

보물 제175호인 경패(經牌)는 길이 15cm, 폭 3cm의 상아 전면에 불보살을 새기고 후면에 불경 이름을 새겼다. 이는 원감국사(1226~1292)가 글안장경을 봉안할 때 경정을 분류하기 위해 붙였던 표찰이다. 모두 43개가 남아 있다.

그 외에 보물로 지정된 경장이 5점 있다. 국보 제42호인 목조삼존불감은 중국 당나라 불상으로 높이 13.9cm, 폭 7cm의 작은 불감이다. 중앙의 불감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비(門扉)를 만들어 열고 닫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열면 세 쪽이 연결된 삼존불이 되고 닫으면 포탄형이 된다. 중앙 본존불은 석가여래좌

상이며, 좌우에 가섭과 아란이 배치되고 본존대좌 밑에 반나체의 시자(侍者)가 공양을 올리고 있다. 오른



▶ 곱향나무 쌍향수

쪽 감실은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있고 그 밑에 관음보살과 반나체의 시자가 있으며 천장에는 3구의 비천상이 있다.

왼쪽 감실에는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있는데, 그 밑에 세지보살이 있고 반나체의 시자가 보현보살의 왼발을 받들고 있다. 참으로 정교한 삼존불감이다. 보물 제176호인 금동요령은 4면에 네 마리 용을 정교하게 조각하여 고려 금속공예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그외에 자정국사 사리함이나 금강저, 고봉국사 주자원불, 팔사파물자(八思巴文字) 등은 중요한 유물들이다.

송광사의 세번째 특징은 18세기

조선시대의 중요한 불과가 많이 소장되어 있어 불화 연구의 보고라는 점이다. 1780년에 그려진 보조국사영정, 1725년에 그려진 오십삼불도(五十三佛圖)와 팔상도(八相圖), 1770년에 그려진 화엄변상도 등은 홍색, 녹색이 주조를 이루는 화면을 보여주며 조선시대 불화 연구의 귀중한 자료들이다.

송광사 천자암(天子庵)에는 수령 800년이나 되는 곱향나무 쌍향수(천연기념물 제88호)가 있다. 높이가 13m 쯤되고 몸통둘레가 4m 쯤 되는 두 포기 향나무가 나란히 선채 몸통이 몹시 꼬여 있어 진귀하고 신비스럽게 보이는데, 이 나무에 손을 대면 극락에 간다는 전설이 있어 신성시하고 있다. ≡